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직무교육실태에 관한 단면적 조사연구

김승희[†] · 김순복¹

광주보건대학 치위생과, ¹전라남도 담양군 보건소

A Cross-Sectional Study on Job Training Course of the Dental Hygienists at the Public Health (sub)Centers

Seung-Hee Kim[†] and Soon-Bog Kim¹

Dep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Gwangju 683-3, Koera

¹Dept. of Society Support, Damyang country office, Damyang-gun 99, Koera

Abstract About 380 dental hygienists who were working in public health centers in 2004 joined this study with questionnaires about the evaluation of job training programs regarding oral health car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ing location, age and career,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ubcenters outnumbered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Centers, as the former accounted for 61.1 and the latter 35.3 percent.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their 36~40s made up the largest age group. The group in their 11~15 years career revealed 48.4, over 16 years career 35.7, under 10 years career group 15.9 percent, respectively. 2. The portion of certification in the respondents was 28.9 percent, as compared to the 71.1percent of non-certification. The major reasons of non-certification were not-applying(44.6%), participation rejected (29.3%). 3. Frequently requested curriculums were school based oral health program(4.42, the highest by Linkert 5 point scale), followed by oral health education(4.41),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toddler and for the elderly(4.04), for the disabled(3.92), oral health planning evaluation(3.85) and oral health survey& investigation(3.69). The gap between Dental hygienists at Public Health Center and Public Health Subcent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p < 0.001$) in oral health survey& investigation and oral health planning evaluation.

Key word The job training course, Dental hygienists at the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subcenters, Public oral health program

서 론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구강보건부문을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국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관리를 활성화시켜야 하므로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사업관리능력이 지역구성원 모두에게 구강건강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¹⁾.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한동안 기본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조하는 치과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발효되어 보건(지)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련 부분의 구강보건사업이 구강질환 예방을 근간으로 하는 업무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96년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 따라 지역사회단위의 구강보건사업들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되어 보건소 단위 구강보건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²⁻⁵⁾.

이러한 공중보건정책의 변화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구강보건인력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본교육 이후에도 변화된 제반여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대단히 필요한 실정이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참가하는 직무교육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⁶⁾. 또한 국민들의 건강증진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구강보건의료인력, 나아가 전체 보건인력은 국민의 안녕생활을 보

[†]Corresponding author
Tel: 010-3162-0852
Fax: 062-958-7638
E-mail: shkim@ghc.ac.kr

장 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력자원⁷⁾이며 전문 공무원이므로 지방 공무원 훈련법 제 8852호에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미 명기되어 있으나, 아직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강보건사업자체를 선심행정의 일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행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중구강보건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에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며, 직무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인식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다른 직능단체에서 행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연구^{8,9)}에 비해 보건의료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치과위생사들의 직무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은¹⁰⁾의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근무실태와 개선방안', 장¹¹⁾의 '보건소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최와 권¹²⁾의 '보건소 구강보건실 실태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 등¹³⁾의 '치과위생사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용인력으로서의 활용정립을 위한 소고(1)', 남 등¹⁴⁾의 '지역사회 구강보건 활동현황 치과위생사들의 교과목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김 등¹⁵⁾의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인식 및 실천도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치과위생사들이 자신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인 그들의 요구가 반영된 직무교육이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직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들이 효율적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3년 실시되었던 직무교육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직무교육의 수요자인 치과위생사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직무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255명의 치과위생사 중 층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380명을 대상으로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관련 직무교육실태 및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참고문헌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83명으

로부터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층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배부된 380부 중 서울 경기 22부, 강원 25부, 충북 25부, 충남 29부, 경북 26부, 경남 22부, 제주 18부, 전북 34부, 전남 45부로 총 246부가 회수되어 65%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 중 응답처리가 곤란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221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총 25문항으로 이 중 일반적 특성요인은 연령, 근무기간, 근무지역, 근무지, 주된 업무형태, 직급 등 6문항이었다. 또한 직무교육실태는 직무교육수료자에 관한 사항 4문항, 직무교육 미수료자에 관한 사항 3문항 등 7문항이었으며, 제반직무교육내용은 교육의 적당한 시기, 교육횟수, 실시기관, 양성과정, 직무교육 중요도 등 5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은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예방진료,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유아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진단, 구강보건 기획 평가 등 7가지 세부문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는 SPSS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증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1) 설문지 문항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0.78$)를 조사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교육 수료실태, 직무교육 미수료실태, 직무교육의 종류별 필요성,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교육 요구도 및 제반 직무교육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하였다.
- 3) 근무기간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유의수준 0.05와 0.001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6~40세가 137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11~15년이 107명(48.4%), 16년 이상이 79명(35.7%)순 이었다. 근무지는 보건지소가 135명(61.1%), 보건소가 78명(35.3%)이었다. 직급은 의료기술 7급이 188명(85.5%)이었다(Table 1).

2. 직무교육실태

2003년도 직무교육실태는 직무교육수료자가 64명(28.9%)이었으며, 미수료자는 157명(71.1%)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riteria	Completion rate
		N(%)
Age	30	11(5.1)
	31~35	41(18.5)
	36~40	137(62.0)
	41	32(14.4)
Duration of occupation	10 yrs.	35(15.9)
	11~15 yrs.	107(48.4)
	16 yrs.	79(35.7)
Location	Public health center(PHC)	78(35.3)
	Public health subcenter(PHS)	135(61.1)
	Others	8(3.6)
The grade of one's position	Medical technician 9	3(1.4)
	Medical technician 8	20(9.1)
	Medical technician 7	188(85.5)
	Others	10(4.0)

1) 직무교육 수료실태

교육수료자 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건(지)소 치과위생사가 직무교육으로 수료한 교육과목의 수는 '부족하다'가 42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가 19명(29.7%)이었다. 연간 직무교육 수료시간은 2~7일이 32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수행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2명(6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직무교육 미수료 실태

교육 미수료자 1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70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안 되었다'가 46명(23.9%),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가 21명(13.4%), '무관심 때문'이 13명(8.2%)이었다. 적당한 직무교육시간은 2-7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3명(71.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3).

3)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직무교육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안내책자를 참조하여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

Table 2. Analyses of the job training course among received subjects

	Criteria	Completion rate
		N(%)
No. of contents	The abundant	3(4.7)
	The proper	19(29.7)
	The lack	42(65.7)
Class per years	1day(4~8hours)	26(40.6)
	2~7days	32(50.0)
	7days	6(9.4)
Help level of achievement	High	42(65.6)
	Middle	22(34.4)
	Low	0(0.0)

Table 3. Analyses of the job training course among unreceived subjects

	Criteria	Completion rate
		N(%)
The reason of not taking a course	Not applying	70(44.6)
	Rejected	46(29.3)
	Loaded work	7(4.5)
	Not one's business	21(13.4)
	Not interesting	13(8.2)
Desire of taking a class per year	1day(8hours)	29(18.5)
	2-7days	113(71.9)
	2weeks	15(9.6)

요에 대한 인식도에서 매우 그렇다/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구강보건교육이 209명(94.6%), 초등학교 예방진료가 208명(94.1%), 유아구강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이 각각 180명(81.4%), 175명(79.1%)이었으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기획 평가가 각각 173명(78.3%), 148명(67%)순이었고, 구강보건진단이 125명(56.9%)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직무교육의 종류별 필요성 중 초등학교예방진료가 4.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진단이 3.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egree of the need for the contents in job training course

Contents	Unit:N(%)			Mean ± SD [†]
	Very much(5)/ Much (4)	Almost (3)	None(2)/ Absolutely not (1)	
Oral health survey & investigation	125 (56.9)	75 (34.1)	20 (9.1)	3.69 ± 0.90
Oral health planning & evaluation	148 (67.0)	63 (28.5)	10 (4.5)	3.85 ± 0.82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disabled	173 (78.3)	42 (19.0)	6 (2.8)	3.92 ± 0.72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175 (79.1)	40 (18.1)	6 (2.8)	4.04 ± 0.76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toddler	180 (81.4)	35 (15.8)	6 (2.8)	4.04 ± 0.79
School based oral health programs	208 (94.1)	(5.0)	2 (0.9)	4.42 ± 0.64
Oral health education	209 (94.6)	11 (5.0)	1 (0.5)	4.41 ± 0.62

Table 5. Degree of the need for the contents by a career

Contents	Career	Mean ± SD [†]	p-value*
Oral health survey & investigation	≤10 years	3.82 ± 0.80	.199
	11~15 years	3.73 ± 0.93	
	≥16 years	3.52 ± 0.98	
Oral health planning & evaluation	≤10 years	3.91 ± 0.83	.875
	11~15 years	3.83 ± 0.84	
	≥16 years	3.82 ± 0.79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disabled	≤10 years	3.85 ± 0.74	.338
	11~15 years	4.01 ± 0.70	
	≥16 years	3.89 ± 0.72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10 years	4.05 ± 0.74	.633
	11~15 years	3.98 ± 0.78	
	≥16 years	4.08 ± 0.76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toddler	≤10 years	4.05 ± 0.78	.472
	11~15 years	4.10 ± 0.72	
	≥16 years	3.96 ± 0.86	
School based oral health programs	≤10 years	4.50 ± 0.62	.827
	11~15 years	4.44 ± 0.62	
	≥16 years	4.41 ± 0.67	
Oral health education	≤10 year	4.44 ± 0.66	.931
	11~15 years	4.41 ± 0.61	
	≥16 years	4.39 ± 0.58	

*: Statistical comparison by ANOVA test

Table 6. Degree of the need for the contents by a location

Contents	Location	Mean ± SD [†]	p-value*
Oral health survey & investigation	PHC	3.96 ± 0.86	.000
	BPS	3.48 ± 0.94	
Oral health planning & evaluation	PHC	4.14 ± 0.68	.000
	BPS	3.68 ± 0.84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disabled	PHC	4.12 ± 0.71	.007
	BPS	3.85 ± 0.69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PHC	4.19 ± 0.74	.031
	BPS	3.96 ± 0.75	
Public oral health services for the toddler	PHC	4.23 ± 0.68	.015
	BPS	3.96 ± 0.81	
School based oral health programs	PHC	4.45 ± 0.64	.897
	BPS	4.43 ± 0.63	
Oral health education	PHC	4.56 ± 0.55	.009
	BPS	4.34 ± 0.62	

*: Statistical comparison by Student t-test

4) 근무기간에 따른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

근무기간에 따른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진단과 구강보건기획 평가, 초등학교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항목이 10년 이하 근무자에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유아구강보건사업 항목은 11~15년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노인구강보건사업 항목은 16년 이상 근무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교육 필요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는 없었다($p > 0.05$, Table 5).

Table 7. Assessment of job training course among respondents

Questionnaires	Criteria	Completion rate
		N(%)
Appropriate term of training	The one third of the year	88(39.8)
	The two third of the year	27(12.2)
	The three third of the year	30(13.6)
	Throughout the year	76(34.4)
Appropriate frequency of training	One time per year	111(50.2)
	Two time per year	102(46.2)
	Three time per year	6(2.7)
	Four time per year	2(0.9)
Appropriate practical locatio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stitute	87(39.4)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71(32.1)
	Public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31(14.0)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30(13.6)
	Other	2(0.9)
Training course of speciality	Necessity	175(79.2)
	Uncertain	35(15.8)
	Unnecessity	11(5.0)

5) 근무지에 따른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

근무지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 구강보건진단과 구강보건기획 평가가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보다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에게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01$), 초등학교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은 근무지에 상관없이 필요도가 높았다(Table 6).

4. 치과위생사 직무교육의 개선점

제반 직무교육의 적당한 시기는 전반기가 88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중 언제든지 무관하다가 76명(34.4%), 중반기 27명(12.2%)순이었다. 적절한 교육 횟수는 연 1회가 111명(50.2%), 연 2회는 102명(46.2%)이었으며, 교육기관은 국립보건원이 87명(39.4%),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71명(32.1%)을 차지하였고, 전문치과위생사 양성 과정은 175명(79.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고찰

국민건강보험의 출현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증진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또 변화하는 건강소비자인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기관에 의해 마련된 교육제공으로 개인이 학교교육과정의 기본교육을 마친 후에 일어나는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하며, 직무교육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최근의 이론 및 정보를 짜여진 교육과정에 따라 받는 일종의 평생교육이다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바, 36~40세의 치과위생사가 62.0%로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평균 13년 3개월이었으며, 11~15년 사이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16년 이상은 35.7%를 차지하였다. 은¹⁰⁾의 연구에서도 경상북도내 보건기관근무 치과위생사의 연령이 36~40세의 치과위생사가 66.5%, 근무기간은 11년 이상이 91.6%로 나타났다. 이는 1986년부터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들이 근무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안정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면 전국 보건기관 치과위생사들의 경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는 보건소가 35.3%, 보건지소가 61.1%이었고 직급은 의료기술 7급이 85.5%로 8급과 9급에 비해 승진이 더 이상 되지 않고 7급에 치과위생사가 적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유로 은¹⁰⁾의 경우 타 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정⁹⁾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급에서 6급 이상이 12.1%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상대적으로 간호직이나 보건직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어 개선방안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승진점수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의 2003년 한 해 동안 직무교육의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직무교육 수료자는 28.9%이었으며, 은¹⁰⁾의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 203명에 관한 연구에서도 3년 동안 직무교육관련 교육수료자가 47.3%로 나타나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수료율이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교육 수료자 64명 중 교육과목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5.7%이었고, 적당하다는 29.7%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직무교육 수료 시간은 4~8시간이 40.6%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업무수행 향상 정도는 본 연구에서 65.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박⁸⁾의 연구결과는 43.1%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낮게 나타난 바 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2000년에 실시한 보수교육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실습위주의 강의가 아닌 이론위주의 강의를 하여서 반영된 수치로 여겨진다.

직무교육 미수료자 중 구강보건 관련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정보부족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44.6%이었으며, 선정이 안 되었다가 29.3%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들이 매년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관계로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별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치과위생사가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이 업무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하겠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교 예방진료사업이 각각 4.41과 4.4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장¹¹⁾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구강보건실 근무치과위생사 93명의 자신이 있는 업무분야가 집단교육사업과 예방진료사업이라고 한 것과 일치하였으며, 민 등¹⁰⁾의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내용 중 학교구강보건의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확대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식도도 가장 높았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유아구강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이 4.04, 장애인 구강보건사업도 3.92로 조사되어 유아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인구구성원 중 보호받아야 될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게 반영되어 보건(지)소 운영체계가 이들을 위한 예방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치과위생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구강보건진단이나 구강보건 기획평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은 3.69와 3.85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근무기간에 따른 구강보건진단에 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10년 이하 근무자는 3.82이고, 11~15년 근무자는 3.73 그리고 16년 이상 근무자는 3.52로 나타났으나 근무기간에 따른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이는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중 구강보건진단이 치과위생사들에게 자신있는 업무분야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근무경력이 오래되어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 등¹⁵⁾의 연구결과에서 구강보건실 근무 치과위생사그룹과 치과실 근무 치과위생사그룹간 지역구강보건사업 진단 및 계획에 대한 업무실천도는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준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실제 현장에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내용과도 연관성이 낮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근무지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나 노인구강보건사업, 유아구강보건사업, 초등학교예방진료,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 그룹과 보건소 근무치과위생사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구강보건진단과 구강보건기획평가 항목에서는 보건소 치과위생사 그룹이 보건지소 근무 치과위생사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이러한 교육과목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주력사업에 따라서 직무교육과정 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최와 권¹²⁾이 연구한 구강보건실 근무치과위생사 35명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내용이 보건기획 74.5%, 보건통계 10.6% 순이었다는 결과와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근

무경력과 근무지에 따라서 직무교육과정 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무교육내용의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운영하면 참가자들의 직무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선택의 기회도 넓혀져서 직무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직무교육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반 직무교육 분석에서 직무교육의 적당한 시기는 전반기에 실시하자 39.8%로 가장 많았고, 희망 교육 횟수는 연 1회가 50.2%, 연 2회가 46.2%로 응답하여 구강보건업무진행을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교육 횟수가 증가되어야 하고,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시기도 다양하게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거의 대다수 치과위생사들이 하고 있어서 직무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구강건강관리가 국가차원의 예방위주의 구강보건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은 79.5%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공중구강보건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재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뿐 아니라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달라는 적극적 의사표현이라고 보여지며, 황과 김¹⁷⁾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연의 업무가 '치아 및 구강의 질환 예방법무'인데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구강진료보조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은¹⁰⁾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업무 중에서 구강보건실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가 57.6%로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되어 지역보건기관 근무치과위생사들은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한 훈련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생각되며, 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변화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수료율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총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한 연구이므로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주력사업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고, 해당 보건소별로 예방사업, 진료사업, 교육사업 등 명확하게 구강보건사업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수집이 힘들었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각 시도 보건국 또는 과에서 보건(지)소 치과위생사를 위한 표준 직무교육 내용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문지 작성의 표준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존 보고서나 현행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에 따른 직무분석이 정책과제로 수행중이거나 진행 중 이어서 연구자가 제시한 일부 문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 시도별로 특색있는 구강보건사업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통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에 차이가 있는 바, 전국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들의 일반성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

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보건(지)소 치과위생사는 졸업 후 의료기사법에 의한 보수교육 뿐 아니라 전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도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255명의 치과위생사 중 총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380명의 대상자들에게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관련 직무교육실태 및 교육과정내용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가 61.1%이었고, 보건소 근무치과위생사가 35.3%이었으며, 연령은 36~40세가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력은 11~15년이 48.4%, 16년 이상이 35.7%, 10년 이하가 15.9%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직급은 의료기사 7급이 85.5%로 나타났다.
2. 2003년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 수료자율은 28.9%, 미수료자율은 71.1%이었고 '직무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가 65.6%, '보통이다'가 34.4%,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0%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교육받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상 시간상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44.6%, '신청을 하여도 선정이 안 되었다'가 29.3%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업무가 아닌 타업무에 종사하여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13.4%로 나타났다.
3.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는 초등학교 예방진료가 4.42, 구강보건교육이 4.41, 유아구강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이 4.04,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3.92, 구강보건기획 평가가 3.85, 구강보건진단이 3.69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05$), 근무지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구강보건 기획 평가와 구강보건진단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간에 유의성이 나타났다($p < 0.001$).
4. 직무교육의 적당한 시기로는 전반기가 39.8%, 연중무관하다가 34.4%, 중반기가 12.2%로 나타났고,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9.2%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Choi JH, Moon HS, Kim JB, Paik DI: The knowledge level of dentists and oral hygienists about oral health policy goals. *J Korean Acad Dent Health* 26(3):435- 450, 2002.
2.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pecial law of Community Health. Article 6800. pp.12, 1979.
3. The ministry of justice: The law of local health. Article 7266. pp.3-5, 1996.
4. The ministry of justice: The law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rticle 7428. pp.25-28, 1995.
5.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workshop of public oral health program. pp.1-21, 2006.
6. Ahn GS: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s work in public health center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1995.
7. Han GS: A plan for dental healthcare manpower(1).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18(1):11-13, 1980.
8. Park SJ: A study on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0.
9. Chung GS: A study of the actualities and demands for In-service education for health center nurse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8.
10. Eun JY: Performance state of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University, 2002.
11. Jang SH: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work and role in the public oral health office in public health center.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1999.
12. Choi CH, Kwon HK: The evaluation of the community based public oral health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J Korean Acad Dent Health* 21(2):301-322, 1997.
13. Moon HS, Nam YO, Jung JA: A study on the role of dental hygienist to set up community oral health project program(1). *J Korean Acad Dent Health* 22(1):57- 67, 1998.
14. Nam OK, Kim JY, Park IS: A study for the college subject necessary degree of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center. *J Korean Acad Dent Health* 28(4):493-502, 2004.
15. Kim SH, Jung SH, Jang HJ: A study on awareness and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 of health center in community dental health programs. *J Korean Acad Dent Health* 29(1):1-11, 2005.
16. Min HS, Sin SC, Seo HS, Kim EJ, Kim HS: 2-years evaluation for program of school dental clinics in Korea. *J Korean Acad Dent Health* 27(2):207-218, 2003.
17. Hwang YS, Kim JB: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consciousness structure of dental hygienist. *Bulletin of Shingu College* 8(1):33-43, 1990.

(Received December 23, 2008; Accepted March 9, 2009)

